

#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2026 Leeds Disability Studies Conference 참석 (발표) 및 개인예산제 전문가(Miro Giffiths 교수) 인터뷰

### 과제명

이용자 중심 재정지원의 양면성과 정책적 함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중심으로

### 출장기간

2026.04.13.(월)-2026.04.18.(토)

### 출장국가(도시)

영국(리즈)

### 출장자

이한나 연구위원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4.13(월)	한국(서울) 영국(런던) 영국(리즈)	-	-	인천공항 출국 런던히드로 공항 입국 런던→리즈 이동
4.14(화)	영국(리즈)	University of Leeds	-	학술대회 참석 발표(1)
4.15(수)	영국(리즈)	University of Leeds	-	학술대회 참석 발표(2)
4.16(목)	영국(리즈)	University of Leeds	Pf. Miro Griffiths	학술대회 참석 Miro Griffiths 교수 면담
4.17(금)	영국(리즈) 영국(맨체스터)	-	-	리즈→맨체스터 이동 맨체스터 공항 출국
4.18(토)	한국(서울)	-	-	-한국 입국

## 2 출장 주요내용

①	2026 Leeds Disability Studies Conference “Navigating the Changing Landscape of Disability/Studies”
일시	2026. 4.14(화)-4.16(목)
장소	University of Leeds, Newlyn building, Esther Simpson building
참석자	Kirsty Liddiard (University of Sheffield), Beatriz Miranda-Galarza (UN Special Rapporteur on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leprosy), Dave Lupton (aka ‘Crippen’, Cartoonist), Stuart Murray (University of Leeds)

### □ 학술대회 소개

영국 University of Leeds 장애학연구소(Centre for Disability Studies)에서 격년으로 개최하는 국제적·다학제적 학술대회로, 다양한 분야의 장애학 연구자뿐 아니라 실천가, 정책입안자, 활동가 등의 인사가 교류하는 장임. 2026년 학술대회는 “Navigating the Changing Landscape of Disability/Studies”를 주제로 2박 3일간 개최되었으며, 36개국에서 참여한 450명(이 중 100명은 온라인 참가)이 참여해 300편 가량의 발표를 진행함.

### □ 일정

날짜	시간	내용
4/14 (화)	9:30	포스터 세션
	11:00	기조강연(1) Kirsty Liddiard (University of Sheffield), Reimaging the disability research process
	13:30	발표세션A
	15:30	발표세션B
4/15 (수)	9:15	기조강연(2) Beatriz Miranda Galaza (UN Special Rapporteur) Reimaging human rights and compassionate care: a vision for the disability future
	10:45	발표세션C
	13:30	기조강연(3) Dave Lupton (Crippen)
	14:45	발표세션D
	16:15	발표세션E
4/16 (목)	9:30	발표세션F
	11:30	기조강연(4) Stuart Murray (University of Leeds) Reading Disability: Processing Research

□ 참여 세션 주요 내용

○ 기조강연(1)

-Kirsty Liddiard (University of Sheffield), Reimagining the disability research process  
장애와 만성질환이 있는 연구자들의 체화된 경험에서 출발한 지식에 기반하여 '크립(crip)' 관점과 방법론의 의미, 정치성, 실천을 탐구하고 그 기여를 고찰함. 크립타임(crip time), 느린 연구(Slow scholarship), 휴식과 회복, 연구 과정에서의 슬픔과 상실 등 급진적 주제를 다룸.

○ 발표세션 A10

-Maria Laura Serra (Universidad de Valladolid, 스페인) Paternalism vs. autonomy. the unresolved judicial struggle in applying Spain's Law 8/2021

최근 개정된 스페인 법 8/2021은 의사능력 제한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대행모델에서 지원모델로 이행했다고 평가됨. 동법이 이행 과정에서 개혁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보호와 자율성간 관계에서 고찰함.

-Somenico Melidoro (Universitas Mercatorum of Rome, 이탈리아) Disability and autonomy: the limits of the relational approach

상대적 자율성(relational autonomy)의 철학적 개념과 특히 발달장애와 관련한 장애학에 대한 적용을 비판적으로 고찰함.

○ 발표세션 B9

-Francisca Adom-Opare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영국) When Inclusion Excludes: Data visibility and the erasures of development in Ghana

가나의 장애통계가 특정 장애를 반영하지 못하는, 특히 가시화되지 않는 장애가 경시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대안으로 협업적 데이터 생태계 모델(collaborative data ecosystem model)을 제안함.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ethinking Disability Recognition in South Korea: Long-Term Conditions and the Boundaries of Legal Disability

한국에서 법적 장애로 인정받지 못하는 건강상태 일부의 장애 인정 타당성을 검토함. 법적 장애의 인정범주를 확대하고, 장애 인정이 낙인이 아닌 권리보장의 기반이 되어야 함을 주장함.

-Krittebas Paul (Queen's University Belfast, 영국) Disability-inclusive development: a study on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development activities in Bangladesh

방글라데시 국가단위 개발계획의 장애인의 접근, 관여, 기여와 이에 대한 장벽을 고찰함. 적지 않은 계획이 장애포용적 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나, 계획의 적합성이 낮고, 관련 자료의 가용성이 낮은 현실을 지적함.

○ 기조강연(2)

- Beatriz Miranda Galarza (UN Special Rapporteur) Reimagining human rights and compassionate care: a vision for the disability future

효과적인 인권옹호를 위해서는 ‘온정적 돌봄(compassionate care)’ 개념을 돌아볼 필요가 있음. 한센병 환자의 경험으로부터 인권, 돌봄, 온정(compassion)의 관계를 재고하고, 유해하게 여겨졌거나 무시되었던 ‘온정적 돌봄’을 다시 찾아옴.

○ 발표세션 C17

-Izabela Grabowska (SGH Warsaw School of Economics, 폴란드) Factors shaping social service user involvement in Poland – the perspectiv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폴란드의 보건복지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관여(involverment of service users)를 신체적, 심리사회적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찰함.

-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valuating the outcome of personal budgets for disabled people in South Korea: a realist evaluation approach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결과를 실재론적 평가(realist evaluation)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참여자에게 나타난 성과와 영향을 미친 맥락과 작동기제를 파악함.

-Hui-yu Kuo (National Chung Cheng University, 대만) Making parenting “accessible” personal assistants’ experiences in supporting parents with disabilities in Taiwan

장애부모의 양육지원 영역에서의 활동지원인 역할의 잠재력을 이들의 경험으로부터 분석함. 부모 역할에 대한 지원은 ‘회색지대’에 남아 있으며, 적절히 다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함.

○ 기조강연(3)

- Dave Lupton (Crippen)

‘Crippen’이라는 필명으로 30년간 장애의 사회모델을 주제로 한 만화를 그려온 강연자의 경험과 영국 사회의 장애 이슈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봄.

○ 발표세션 D12

-Stella Canonico (Università degli Studi di Ferrara, 이탈리아) Normativity and normalization through Disability Studies: A phenomenological-empirical research on the experience of deafness in active music therapy

비의료적 맥락에서 장애인의 경험을 정의하기 위한 의료-개별 규범의 모호한 사용을 비판하는 장애학의 현상학적 모델에 맞추어, 청각장애인의 주관적 경험을 토대로 장애의 인식론을 정의함.

-Sabrina Ward-Kimola (Concordia University, 캐나다) GA operator: protocol, language and ethics at the western institute for the deaf and hard of hearing

서부 캐나다의 TTY(문자통신) 사용자와 전화 중계원 간 관계를 ‘프로토콜 문서’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풀뿌리 기반의 유연한 접근 관계가 제도화된 통신 인프라 속에서 어떻게 고정되고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함.

○ 발표세션 F1 Symposium: Practice Theory and Disability Studies. Un/doing Dis/ability in the Context of Embodiment, Differences and Social Control

-Sarah Karim (HU Berlin, 독일) Practice Theory and Disability Studies. Un/doing Dis/ability in the Context of Embodiment, Differences and Social Control

Fabian Rombach(Universität zu Köln, 독일) Practice Theory and Disability Studies. Un/doing Dis/ability in the Context of Embodiment, Differences and Social Control

Hanna Weinbach (Universität Siegen, 독일) Un/Doing Dis/ability as consequence of social services work. The constitution of ‘cases’ as practice of social control

인간행동학(praxeological) 관점이 장애학의 이론적, 방법적 토대를 강화할 수 있는지 탐색함. dis/ability를 고정된 실체(fixed object)가 아닌, 상황과 맥락 속에서 구현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양한 실천 경험을 토대로 실천이론(practice theory)과 장애학의 교류를 시도함.

○ 기조강연(4) Stuart Murray (University of Leeds) Reading disability; processing research

기존의 규칙적이고 분석 중심적인 연구 방식으로는 장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으며, 장애 연구는 새로운 방법과 태도가 필요함. 장애를 결핍이 아니라 관계와 경험 속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 느린 연구와 ‘함께 머무르기(sitting with)’ 같은 방식이 중요함.

②	Interview with Pf. Miro Griffiths (University of Leeds)
<b>일 시</b>	4.16 (목) 13:00~14:00
<b>장 소</b>	Esther Simpson building (University of Leeds)
<b>참석자</b>	(원내) 이한나 연구위원, (원외) Pf. Miro Griffiths

□ 논의 내용

○ 개인예산제의 이중적 성격

-개인예산제는 선택권, 자기결정, 자립생활을 강화하는 권리 기반 목적과 공공지출 절감을 지향하는 비용 효율성 목적을 동시에 지님. 권리 담론이 정책적으로 강조되나, 비용 절감 논리와 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존재함. 기존 비용 분석은 국가 지출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의 지역경제 참여, 고용 창출 등 간접적 효과는 과소평가되는 경향 있음.

○ 신뢰와 제도 수용

-개인예산제 도입에 대한 갈등은 국가에 대한 신뢰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됨. 한국의 일부 장애인단체 반대는 재정 축소 우려, 낮은 복지지출 수준에 대한 불신 등에서 기인함. 유럽 사례에서는 전통적 서비스 제공기관, 일부 부모단체가 반대 주체로 나타남.

-제도 작동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원 확보, 국가-장애인단체 간 협력 등 신뢰 기반 거버넌스 구축이 핵심임.

○ 개인예산의 충분성 문제

-개인예산제의 핵심 쟁점은 개별 예산이 충분한 수준인가(sufficiency)임. 비용 절감 논리로 설계될 경우 장기적으로 제도 실패 가능성 존재함. 개인별 욕구와 상황 차이를 반영한 유연한 배분 구조 필요함.

○ 개인예산 사용의 목적 혼재

-개인예산이 생계비, 부채 상환 등으로 사용되는 현상 존재함. 이는 제도 이탈이 아니라 소득보장 부족 및 생존 문제를 반영하는 결과임. 개인은 우선적으로 생존과 안정 확보를 선택하는 경향 있음. 따라서 개인예산제는 소득보장·접근성 정책과 분리된 상태로 이해하기 어려움.

○ 제도 분절성에 대한 비판

-소득보장과 돌봄지원의 구분은 실제 삶과 괴리된 인위적 구분임. 개인은 일상에서 다양한 필요를 통합적으로 경험함. 현행 제도는 개인을 여러 제도에 맞추도록 요구하는 구조임. 이에 대해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지원을 재구성하는 통합적 접근 필요성 제기됨.

○ 지원(support) 중심 평가의 필요성

-기존 제도는 의료적 진단과 결핍(need)을 기준으로 자원을 배분함. “무엇이 부족한가”보다 “무엇을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함을 강조함. 이는 개인의 목표, 환경, 사회적 장벽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임.

○ 유연성과 가족 맥락

-개인예산 사용은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가족·관계 맥락 속에서 이루어짐. TV, 가전, 서비스 등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지출도 참여와 관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음. 개인을 고립된 존재로 보는 접근은 한계가 있음.

○ 자기결정과 옹호(advocacy)

-개인예산제는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하나, 역사적으로 장애인은 의사결정에서 배제되어 온 경험이 있음. 이에 따라 가족 또는 제3자에 의한 영향·착취 가능성 존재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기반 옹호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도덕적 해이와 관리

-일부 부정 사용 사례 존재하나, 실제 규모는 제한적임. 정부는 이를 과장하여 통제 강화 근거로 활용하는 경향 있음. 일률적 통제보다 신뢰 기반 + 필요 시 개입 방식이 적절함.

○ 행정 부담과 운영 방식

-한국 시범사업은 계획 수립, 영수증 제출 등이 이용자와 행정 모두에 큰 부담을 초래함. 인터뷰에서는 최소한의 정기 점검(예: 연 1회), 문제 발생 시 추가 점검, 저부담·고신뢰 방식 제안됨.

-행정 인력은 통제보다 지원 설계와 상담 역할에 집중할 필요 있음.

○ 정책 설계 및 시사점

-개인예산제는 고정된 제도가 아니라 지속적 실험과 조정이 필요한 정책임. 시범사업은 다양한 운영 방식(지급 방식, 점검 주기 등)을 실험하는 과정으로 활용 필요함. 정책 운영은 실행과 동시에 지속적 평가·재설계가 병행되는 구조 필요함.

○ 종합

-개인예산제는 단순한 재정 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삶, 참여, 관계를 재구성하는 권리 기반 제도임.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재정 설계뿐 아니라 신뢰, 제도 구조, 문화적 인식 전반의 변화 필요함.

3

**출장 증빙 (세미나 및 회의현장 사진, 명함 등)**